

# 탈락업체 법적 대응 나설 듯...후폭풍 예고

##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반납' 방식, 금호산업은 '자격 박탈' 방식이었다. 광주도시공사가 19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진 반납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놓으면서 경쟁을 벌여 큰 점수차로 떨어진 한양건설이 해택을 봤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례적인 재평가를 거쳐 차순위업체인 호반건설에게 자격을 넘겨주게 된 금호산업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로 인해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되면서 심사표 사전유출, 시감사위 감사 결과 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시감사의 최종 목적이었나=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두고 민선 6기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2단계의 경우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을 늘리고, 지나친 고층화를 억제했으며, 이와 함께 지역공기업을 참여 가능성도 열었다.

지난 11월 8일 시민평가단, 제안심사위원회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 금호산업으로 각각 결정했다. 광주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땅장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민간건설업체 역시 시행사 지위를 유지할 뿐 토목, 건축 등 주요 분야에 있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데다 오히려 수익 창출에만 주안점을 두는 민간건설업체보다 공기업이 공원 개발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땅장사' 의혹이 집요하게 제기됐으며, 시 감사위의 감사 결

## 광주시 감사 결과 발표 후 변경

### 시민·전문가 평가 점수 무력화

### "심사표 유출 등 수사 필요" 목소리

과 역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을 갖지 못한 광주도시공사의 한계만을 지적하면서 사업 수주와 사익 창출에만 전념하는 건설업체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평가단, 제안심사위의 심사 결과 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 간 점수 차가 8점에 달하는 등 격차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시감사위 결과가 시민, 전문가 등의 평가 점수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호산업 역시 반발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재평가 결과 오히려 점수가 더 올랐다는 것이 내부 결론이며, 시 감사위의 감사와 재평가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심사표 사전유출, 객관성 문제제기, 감사 착수, 도시공사 자진 반납=광주시 감사위가 지난 11월 15일 감사에 착수할 당시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심사표의 사전 유출이었다. 심사표의 사전 유출은 업체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공직자의 심사표의 사전유출과 시 감사위의 감사 착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진반납 등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관계자는 "이번 시 감사위의 감사와 이후 행정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결과를 발표했지만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꼬집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가 19일 민간공원 2단계사업 6개 지구 가운데 2 곳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공원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

## 靑, 김태우 수사관 검찰 고발...비밀 누설 혐의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의 검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정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론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제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

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를 베껴 쓴 첩보를 제출하고 일부 언론은 그의 첩보를 토대로 기사를 쓰는 등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제보로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러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 휘둘림을 알면서도 휘둘림을 당한 건지, 모르면서 당한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날 자 다른 언론 기사에 인용된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청와대 관계자 언급과 '청와대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장학재단 2019년 제10기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청년 대학생들을 배움과 나눔의 대한민국 "미래 인재"로 만들어주실

# 멘토를 모십니다

-지역별 멘토 모집-

꿈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젊은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인생의 스승이 되어 대학생 멘티에게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전해주세요.



### 모집요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30일(금) ~ 2019년 1월 11일(금) (일정 변경 가능)
  -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위촉
- **신청대상** : 기업, 학술, 언론, 문화, ICT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신 분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운영사무국 02) 2259-2640~2644

▶ **관련 사이트**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 또는 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안내
- 뉴스레터(www.kormentletter.co.kr)

### 활동내역

- **활동시기** :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8개월 간)
- **활동주기** : 월 평균 1회 이상
- **활동주제** : 취업·창업 등 진로탐색, 자기개발 등 대학생 관심 주제로 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및 특별활동 (기업탐방, 봉사활동 등) 이 외 재단 공식행사 (코멘트 데이(워크숍), 리더십 콘서트 등) 참여
- **활동대상** : 전국 대학(원)생 중 선발
  - 1차 재단심사(2월) → 2차 멘토 면접(3월) → 최종 선발(3월말)
- **활동인원** : 멘토 1명당 대학생 멘티 6~10명 내외
- **지원사항** : 소정의 활동비(교재·교구비 등) 지원



## 전세계 동심 사로잡은 90살 귀염둥이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0) 마키마우스



리히텐슈타인 작 '이것 좀 봐 미키'

"아빠는 이 만화처럼 잘 그리지 못할 거야" '마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만화를 보던 아이가 화가인 아빠에게 대놓고 투덜거린다. 이 말을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비구상 추상표현주의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던 로이 리히텐슈타인(1923-1997)은 만화 주인공 마키 마우스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그림을 한 점 그린다.

리히텐슈타인의 '이것 좀 봐 미키'(1961년 작)는 도널드 덕이 뿔뿔 찢어진 낚시바늘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윗쪽을 누른 줄 알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분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늘 도널드 보다 착하고 똑똑한 미키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알아채고 장갑 낚시 손으로 웃음이 터지려는 입을 막으며 참고 있다. 화가는 이 작품이 극적인 만화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야기의 이어지도록 서사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인쇄된 것처럼 보이도록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망점(dot)까지 도널드의 눈과 미키의 얼굴에 세밀하게 표현한 이 그림 한 점으로 화가는 그동안 미국 미술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

로운 시각문법을 창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현대미술의 중심에 서게 된다. 당시만 해도 저급 문화로 취급받았던 만화를 회화에 도입함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예술가이자 만화적인 그림을 현대미술의 정점인 팝아트로 재해석하여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만화영화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1901-1966)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마키 마우스'가 탄생한 것은 1928년. 그러니까 올해가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마키 마우스는 탄생기념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이벤트, 전시회, 기념 티셔츠 출시, TV 만화영화와 영화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로 연말을 풍성하게 장식하고 있다. 우리 세대에 열광했던 캐릭터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 캐릭터로 가득했던 지난 시절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새로운 마키 마우스 아이템을 뒤적거리며 동심에 젖어 본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